



“이안 소프 세계기록 깰 선수는 박태환 뿐”

■ 호주 수영 스타 해켓 전망

호주의 장거리 자유형 최강자인 그랜트 해켓(27)이 은퇴한 이안 소프(24·호주·사진 오른쪽)가 보유한 자유형 400m 세계기록을 베이징올림픽에서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도·사진 왼쪽)이 깰 것으로 전망했다. 11일(한국시간) 호주 일간 ‘디에이지’에 따르면 해



켓은 “소프의 기록을 깨는 건 큰 도전이다. 하지만 박태환은 그 기록을 위협할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록은 깨지게 마련이다. 소프의 자유형 200m 세계기록이 깨질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지만 마이클 펠프스가 보기 좋게 넘어서고 말았다. 400m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소프의 기록을 위협하

고 있는데 박태환이 그 리스트의 맨 위에 자리잡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자유형 400m에서 해켓은 소프에 뒤져 은메달에 그쳤다. 당시 소프는 3분43초10을 찍었고 해켓은 0.26초 느린 3분43초36이었다.

이 종목에서 해켓의 최고 기록은 3분42초51이고 박태환의 경우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할 때 기록한 3분44초30이다.

소프의 세계기록은 3분40초08. 소프가 은퇴함에 따라 현역 선수 가운데 가장 빠른 기록을 보유한 해켓은 내년 올림픽 자유형 400m에서 충분히 우승을 노릴 수도 있지만 예상 금메달리스트로 박태환을 꼽았고 소프의 세계기록까지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최재홍기자 lion@



최홍만 VS 표도르

맞대결 이뤄질까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27)과 ‘얼음황제’ 표도르 에벨리아네펬코(31·러시아)의 맞대결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K-1 주최사인 FEG 관계자는 11일 “최홍만과 표도르의 대결을 타진중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확실치 않지만 이번 주 내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홍만이 K-1 경기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둘의 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홍만과 표도르의 대결이 성사된다면 둘의 ‘빅 매치’ 무대는 31일 일본 사이타마시에서 열린 프라이드 마지막 대회인 ‘아렌노카! 오미소카’.

K-1 주최사 “주내 결정”

성사판 31일 12시 열릴듯

프라이드 전(前) 임직원들이 지난 해까지 프라이드 간판 스타로 자리를 잡았던 표도르를 섭외해 기획한 연말 대형 이벤트다.

최홍만이 표도르와 대결한다면 그라운드 속으로 각자 활동하는 무대가 다르지만 프라이드 측이 출전 선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K-1 주최사인 FEG에도 최홍만을 비롯한 다수의 파이터 지원을 요청했다.

최홍만이 표도르와 대결한다면 그라운드 기술을 허용하는 종합격투기(MMA) 방식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MMA 대회에만 출전했던 표도르는 일단 입식 타격 방식인 K-1 톨로 싸우길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입식 위주로 훈련을 해 온 최홍만이 표도르와 대결을 수락할 지가 최대 관건이다.

최홍만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K-1 톨로 표도르와 불길 원하지만 지난 해 12월 MMA 대회에 한차례 출전해 바비 오로건(34·나이지리아)을 1회 TKO로 꺾었던 터라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

전남, 포항 고기구 영입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포항 스틸러스의 공격수 고기구(27·사진)를 영입했다.

전남은 11일 내년 시즌 공격력 강화를 위해 고기구를 받는 대신 남궁도(25)를 포항에 내주는 1대1 트레이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87cm에 82kg의 고기구는 2004년 프로 무대에 데뷔, 4년 동안 99경기에 출전해 16골을 넣고 6개 도움을 보냈다.

전남은 고기구 영입으로 기존 외국인 공격수 산드로, 시몬과 함께 막강한 공격 편대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궁도는 2007 시즌에는 상무 소속으로 뛰며 28경기에서 9골을 기록한 뒤 지난 달 전역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너무 늦은 블로킹

11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배구 V리그 삼성화재와 한국전력의 경기에서 삼성화재 손재홍(뒤)이 한국전력 블로킹이 뜨기 전에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삼성화재 3대0 승.

이천수 팀 복귀 위해 출국

시즌 중 일시 휴가를 얻어 귀국했던 네덜란드 프로축구의 이천수(26·페예노르트)가 팀 복귀를 위해 출국했다.

감기와 장염 증세로 인한 컨디션 난조 등으로 지난달 28일 일시 귀국한 이천수는 2주 휴가를 마치고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네덜란드로 떠났다.

이천수는 출국에 앞서 가진 짧은 인터뷰에서 “팀에서 배려를 해주어 잘 쉬었고 마음까지 잘 추슬러 돌아간다. 이전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갈색폭격기’ 신진식 16일 은퇴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의 겨울리그 9연패 신화 주역인 ‘갈색폭격기’ 신진식(32)과 김상우(34), 방지섭(32)이 정들었던 코트를 떠나며 팬들에게 인사하는 자리를 갖는다.

삼성화재는 16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LIG손해보험과 홈 개막전이 끝난 뒤 3명에 대한 합동 은퇴식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축구협...감독 무기 자격정지

심판 판정에 불복, 경기 중 학생을 앞에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운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이 무기한 자격정지의 징징계를 받았다. 11일 광주시 축구협회와 서부교육청에 따

심판 판정 불만 폭언·소란 초등학교 축구부 지도자 징징계

르면서 축구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시험 중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폭언과 소란을 피운 광주 S초교 축구부 A감독에게 무기한 자격정지, B코치에게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A감독과 B코치는 지난달 초 열린 소년체전 광주지역 2차에선 W초교와 경기 후반에 심판 판정에 항의하고 학부모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징계를 받았다.

특히 A감독은 지난해 소년체전 예선전에서도 심판 판정에 항의, 심판을 폭행해 1년간 자격정지 중이어서 가중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에 대해 심판출신인 S초교 감독은 “심판 판정에 불복, 항의 한 것은 잘한 일이라 할 수 없지만 당시 운동장에 관람은 사람들도 편과 판정이 심했다고 지적했다”며 “심판 출신이어서 이익을 본게 아니라 도리어 차별을 당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축구협회 관계자는 “S초교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지만 검토 결과 판과 판정은 없었다”며 “대한축구협회에 이사회 결과를 통보한 만큼 대한축구협회의 처분에 따라 징계를 확정하고 앞으로 경기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



12일(수)

▲2007 4개국 대학배구대회(한국백범: 중국)(13:50) <한국청팀: 태국>(15:50·SBS스포츠)

▲NH농협 07/08 V리그 여자부(GS칼텍스: 흥국생명)(17:00) 남자부(대한항공: 현대캐피탈)(19:00·KBS N SPORT) ▲07/08 프로농구(KCC: KT&G)(18:50·Xports)

▲FIFA 클럽월드컵 2007 준결승(19:20·SBS스포츠)

13일(목)

▲07/08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6차전 <AS 로마: 맨체스터 Utd>(04:30·MBC ESPN)

Advertisement for 'SARIPPEL' (사피펠) featuring a list of products and prices. Includes a phone number: (주)상현로이스 TEL. 1566-9194.

Advertisement for 'BANDERA 7080' (밴드피아 7080) featuring a guitar and promotional text. Includes a phone number: Tel. (062)381-5542, 382-5542.